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의 만남과 이산의 주체와 타자

- 「최척전」·「김영철전」·「강로전」을 중심으로 -

李民熙(아주대)

1. 들어가며
2. 주체와 타자의 개념 및 작품의 주요 서사
 - 1) 주체와 타자의 개념
 - 2) 전쟁 소재 역사소설의 주요 서사
 - (1) 만남과 이산의 서사
 - (2) 대결의 서사
3. 주체와 타자 관점에서 본 만남과 이산의 역사적 진실
 - 1) 타자에 의한 주체성의 성립
 - 2) 만남과 이산의 역사적 진실
4. 나오며

1.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16세기 말~17세기 초 조선을 비롯해, 중국과 주변의 동아시아 나라들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창작된 한문 중단편소설 또는 국문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또는 심지어 러시아군과의 전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삶의 애환을 진지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생전」·「위경천전」·「임진록」·「최척전」·「임경업전」·「박씨전」·「강로전」·「김영철전」·「배시황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작품은 국내 소설사 발달과정과 의미를 더욱 역동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들임에 틀림없다. 최근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한 것

도 역사와 소설의 긴장관계를 재해석하고 그 소설사적 의미를 찾기 위한 일련의 시도라 할 것이다.¹⁾

이들 개별 작품들은 주제나 양식상의 특질과 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을 매개로 한 역사적 서사가 공통적으로 텍스트 속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작품군으로 묶어 이해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 소위 전쟁 소재 역사소설²⁾이라는 범주 속에서 다룰 수 있다.³⁾ 특히나 그 중에서도 세 편의 소설 『최척적』· 김영철전 · 강로전은 전쟁이 주인공의 운명과 서사전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체험의 주체라 할 민족과 개인이 빚어내는 서사적 갈등

-
- 1)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외 다수.
 김대현,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17세기 소설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6.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외 다수.
 박희병, 『최척적-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외 다수.
 송하준,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정환국, 『17세기 실기류와 소설의 거리』, 『한문학보』 제7집, 우리한문학회, 2002 외 다수 등.
 - 2) ‘역사소설’이란 용어사용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소설이란 용어 자체가 고전문학학계에서 양식적 측면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소설이니 전계 소설이니, 군담소설이니 영웅소설이니 하는 것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의 장르를 정의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장르는 늘 연구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장르 논의는 장르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역사소설을 ‘과거에 소재와 무대를 둔 소설’(현진건, 『역사소설 문제』, 『문장』, 1939년 12월)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도 없지만, 역사소설을 역사와 특별히 연계된 소설, 곧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가 융합되어 있는 양식이자 소설 장르라고 말한들 틀렸다고 할 것도 아니다. 역사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허구성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 역사소설의 장르적 성격 또한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소설은 그 장르적 특성상 역사와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사소설 장르가 문학과 시학, 그리고 역사가 결합된 복합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문학적인 잣대만으로 역사소설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소설이 근대에 서양에서 등장한 소설 중의 하나로 볼 경우, 엄밀히 말해 우리의 역사 관련 고전소설을 역사소설로 환치시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들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경험한 총체적 국면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꿰뚫히게 그려놓은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업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식적 측면보다 소재적 측면에 주목해 역사 관련 고전소설을 역사소설이란 용어로 사용 가능하다.
 - 3) 15세기에 창작된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도 고려에 쳐들어온 홍건적의 침입으로 주인공이 가족과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과 그 의미의 지평이 다른 작품들보다 대단히 넓고 다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⁴⁾ 이에 보고는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진실(진정성)의 의미를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⁵⁾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그런데 하필 지금에서 역사소설 작품을 가지고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논의가 굳이 근대를 ‘극복’하려는 것도, 회귀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소박하나마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미래지향적 인문학의 담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유의미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순수하게 인본주의적 시각에서의 ‘인간’을 주체와 타자로 놓고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문학사적 시각을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⁶⁾ 다시 말해, 민족문학 이전에 인간 중심의 인문학 및 국문학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
- 4) ‘전쟁 소재 역사소설’을 기존의 전계(傳係) 소설 또는 전기(傳奇) 소설 등과 구별해 사용하려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주체로서의 민족과 개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타자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들의 성격을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후기 들어, 한 인물을 입전 대상으로 삼아 규범화한 가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던 전(傳)이 조선후기 사회현실의 심각한 갈등구조를 담아내게 되면서 소설화 경향을 띠게 되고, 또 이러한 소설화 경향을 띠는 전에서 현실을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한 그대로 담으려는 작가의 현실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양식적(장르적) 측면보다 소재적 측면에 좀 더 논의 무게를 두고 대상작품들을 보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이들 작품들을 전쟁 소재 역사소설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경우, 현실을 관념이 아닌 현실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현실주의적 의식을 내포한 작품이야말로,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현실을 주체와의 차이가 드러나는 타자로 바라보려는 본고의 시각에 부합하는 대상작으로 충분하다.
- 5) 전쟁 소재 역사소설을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웅 역사소설과 범인 역사소설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때 「임진록」·「박씨전」·「임경업전」 등은 영웅 역사소설로, 「최척전」·「김영철전」·「강로전」·「배시황전」 등은 범인 역사소설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배시황전」은 나선정벌에 관한 이야기인 반면, 나머지 세 작품은 요동출병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최척전」의 경우는 정유제란까지 포함), 전쟁으로 인한 만남과 이산의 과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생전」·「위경천전」은 본격적인 역사소설보다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비극적 관점에서 다룬 애정류 전기소설에 가깝다.
- 6)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화회, 2003. 이러한 논문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샤르트르도 일찍이 ‘타자와의 만남’을 ‘시선(視線)’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시선’에 대한 이해 역시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소 거창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한 고민의 한 예에 해당한다.

2. 주체와 타자의 개념 및 작품의 주요 서사

1) 주체와 타자의 개념

논의를 위해 먼저 17~18세기 전쟁 소재 역사소설(특히 「최척전 · 김영철전 · 강로전」 세 편의 작품)에서 허구와 사실 사이의 간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역사’소설보다 역사‘소설’에 방점을 두고, ‘역사적’이라는 표현 속에 내재한 ‘문제적’이라는 의식과 인식의 내포와 외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역사소설 자체가 지닌 장르적 성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역사적 진실’에 대한 다층적 접근과 이해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진실’이란 ‘작가가 역사와 인간,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며 엮어내고 풀어내는 시선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론 이때의 ‘시선(視線)’이란 주체와 타자의 차이에서 감지되는 것임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처럼 역사소설이 갖는 장르적 성격상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려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나와 남을 지칭하는 주체와 객체 정도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멀리서 관찰하면 주체의 군집이던 것이 카메라를 그 중 어느 하나에 고정시키면 그 나머지는 타자의 군집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작가가 어느 사건(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거기에는 이미 일정한 선택과 배제의 코드가 작동하여 주체와 타자가 유발된다. 이 때 작가는 누구는 주인공으로, 또 다른 누구는 주변 인물로서 나타나게끔 하기 위한 여러 서사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

러한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 배제될 인물들이나 상황들을 독서하는 과정에서 타자 위치에 놓고, 나머지 주도적인 시점들을 선택해 작품 전체의 의미 구조, 또는 시선화된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⁷⁾

이처럼 역사적 소재를 취해 선택과 배제의 코드를 작동시킨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포착해 내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럴 경우 작가와 독자의 의식 기저에는 ‘주체’와 ‘타자’ 양자의 관계성에 의해 형성된 인식체계의 상(象)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역사적 진실은 작가나 해석자가 권위적이거나 집단 의식이 반영된 것일 경우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해석 지침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의 주체, 그리고 주체와 타자에 대한 해석과 시선이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중세의 일률적인 문화 환경과 한정적인 텍스트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근대의식이 마련되기 시작한 이후의 작품에까지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일임에 자명하다.

그렇다면 정작 중세 이후에 나타난 소설에서 주체(主體)란 무엇인가? 그것은 텍스트상의 주동인물(주인공)일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⁸⁾, 한 시대의 역사 현상 전체, 즉 작가와 독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웅, 또는 사상, 가치관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는 이들을 전부 결합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세 구성 성분 각자일 수도 있다. 적어도 주체와 타자 논의를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는, 다분히 자기 반성적이며 상대적인 시선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설이 분열된 세계의 서사적 재현양식이라는 데서 연유한다.⁹⁾ 다시 말해, 그것은 작가이든 주인공이든 간에 하나의 전일(專一)한 시점으로 의미구조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⁰⁾ 오히려 주체는 한갓 이름에 불과한 것일 뿐 실상은 타자의 타자성 속에서 비로소 주체로서의 자리를 확인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렇기에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무수한 타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7) 윤채근, 『차이와 체계』, 월인, 2000, 246면.

8) 작가는 독자, 그리고 하나의 형성된 시선으로서의 등장인물을 타자로 설정했을 때 주체가 될 수 있다.

9) 윤채근, 『차이와 체계』, 월인, 2000, 233면.

10) 이처럼 주체가 복수적이면서 관계적이라는 것은 텍스트 상에 나타나는 시선 역시 관계적이며 복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끌어내 텍스트에 의미론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긴장 속에서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상황을 재현해내게 된다.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주체라는 개념은 그동안 흔히 우리가 주체를 타자를 배제한 단일하고 고정적인 하나의 의미로 선택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혼란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주체가 타자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체로서 주체다워질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시각은 분명 소설 속 다양한 의미상황을 꿰뚫고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본다면, 타자는 주체와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독립체로서의 타자이기에 주체의 시간적 구성에 의해 주체의 생산자 노릇을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 주변화되고 배제된 결과물이자, 주체와의 ‘차이’를 지니는 단독성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가 각 시대의 이념 혹은 세계관, 풍속이란 잣대로서 얼마든지 재배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고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훌륭한 문학 텍스트일수록 그것이 가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재배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타자와 주체 사이에서 빚어지는 ‘차이’의 문제가 역사소설 텍스트 상에서 어떤 의미론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쉬운 예로, 자연의 경우, 외면으로서의 자연은 관조하는 주체의 내면에 의해 매개된 자연, 원근법적으로 드러나는 풍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이 자신의 단독성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조하는 주체의 내면에 의해 이해될 때,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풍경일 뿐이다. 혹은 내면의 투사물일 뿐이다. 그런 자연에는 대상으로서의 풍경만이 있지 타자성을 갖는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성을 갖는

11) 사실 주체와 타자의 개념논의는 이성적 존재로서 필연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근대론자들과 인간 이성의 역사적 조건 지움과 모든 합리적 주장들의 사회적 맥락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자아와 세계에 대한 견해란 없는 것으로 말하는 탈근대론자들 사이에서 가열하게 다투어져 온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탈근대론자들은 주체 논의를 타자성을 중심으로 다시 배열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본고는 후설·레비나스·사르트르·틀뢰즈 등 철학자들의 인식론 논의의 무수한 변주를 참고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타자에 기초한 주체성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주체와 타자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나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 주목하는 만큼 차이와 우연성(불가항력적 타자적 힘)을 매개로 한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논의의 단초는 서동욱, 『차이와 타자』(문학과 지성사, 2000)에 힘입은 바 크다.

자연이라 함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연, 즉 꽃들이 아무렇게나 피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벌레와 진드기들이 살고, 먹이사슬에 의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세계의 현상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 즉, 실재하는 자연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속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인간 세계와 ‘차이’가 나는 타자화한 세계의 모습을 지닌다.¹²⁾

이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주체와 타자 관계는 태생적으로 역동적 구조를 지닌다. 주체가 갖는 타자와의 차이는 운동성 내지 힘으로 감지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체 자신의 동일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무엇, 곧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의 타자란 내면과 외면이라는 동일성의 구조를 와해시키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숲속에 내팽겨 쳐진 인간(주체)은 자연(타자)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한다. 인간이 자연과 동일하다면,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 자연을 타자로 인식하기에 주체로서의 인간이 두려움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와 ‘차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삶에서 우연히 조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 무엇이다.¹³⁾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원래 본대(視)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능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가 어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주체 밖의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주체와 대상은 거리를, 다시 말해 나는 나고 대상은 대상이라는 식의 거리를 함축하게 된다. 반면, 만난대(遇)라는 말 속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우발적 만남을 전제로 한다.¹⁴⁾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소나기와 조우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우(遭遇)하다’라는 의미에서

12) 강신주, 『莊子 :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256~257면 참조.

13) 한편으로 이러한 속성을 지닌 타자란 조동일의 장르이론에서 주요한 개념어로 사용되는 ‘자아’와 ‘세계’라는 용어 중 ‘세계’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자 간에 유사한 속성이 있음만을 언급할 뿐, 그 자체에 대한 시비는 유보하기로 한다.

14) 영어로 우발성을 뜻하는 ‘Contingency’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접촉(Contact)을 뜻하는 ‘Contingere’라는 말에서 나왔다. 따라서 우발성이란 기본적으로 접촉, 또는 조우(遭遇)를 긍정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의 만남과 접촉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타자나 사건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우발성,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¹⁵⁾

그렇다면 상대를 ‘바라보거나 우연히 만난다’는 것이 본고에서 다루려는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차적으로 이것들은 사건전개의 주된 기제로 기능한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만남과 이산이 반복되는 서사구조에서 사건전개의 내재적 기제로 작동하는 추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가항력적 전쟁으로 주체는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거기엔 우연성의 원리가 늘 지배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의도한 것이 아닌, 우연의 결과인 것이다.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전쟁이야말로 작가가 의도한 ‘우연성의 원리’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기제이다. 이러한 우연적 만남과 이산은 비단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여타 소설에서도 상존하지만, 타자의 적극적 개입 하에 만남과 이산의 우연성이 첨예하게 드러나기 쉬운 장르가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타자적 속성과 의미 중에서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압도적 힘으로서의 타자적 속성을 가장 풍부하고 진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장르 중 하나가 여타 소설과 구별되는, 바로 역사소설, 그 중에서도 전쟁을 매개로 한 소설들이라 할 것이다. 본고가 기본적으로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의 주체와 타자, 그리고 그 차이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미론적 지평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 있다.

2) 전쟁 소재 역사소설의 주요 서사

(1) 만남과 이산의 서사

그렇다면 이들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보이는 주된 서사는 무엇인가?¹⁶⁾ 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기에, 이들 작품 속에는 국가(또는 민족) 간의 대결을 주된 서사축으로 삼고 있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과 싸우거나 최척진·「김

15) 강신주, 『莊子 :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270면.

16) 개별 작품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영철전·강로전·「임경업전」 조청 연합군이 러시아와 대결하기도 한다.(「배시황전」) 비단 국가 간 대결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대결, 예컨대 임경업 대 김자점(「임경업전」), 또는 강홍립 대 김응하·김경서(「강로전」) 등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다른 서사축으로는 등장인물 간의 ‘만남’과 ‘이산(離散)’을 빼놓을 수 없다. 전쟁이 한 나라(민족)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 개인에게 밀어닥치는 파국과 고통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때 전쟁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산’ 또는 그들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혼인)이 방해받거나, 사별을 하거나, 가족 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별 또는 이산의 고통 뒤에 때로는 극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의 일면이다. 이럴 경우, 고난 끝에 재회하게 되는 주인공과 그들의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찌릿찌릿한 감동과 연민에의 심리, 그리고 인생만사를 돌아보게 하는 감동과 반성의 기회마저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사실이면서도 믿기 어려운 허구처럼 인식되기에 더욱 흥미진진한 현실적 상황이자 삶의 모습으로 부각되곤 한다.

최척전에서는 부부 간의, 가족 간의 만남과 이산의 슬픔, 그리고 재회의 장면이 베트남, 중국, 일본, 조선을 무대로 거듭 나타나고 있다.¹⁷⁾ 김영철전에도 3나라 3곳에서 3명의 아내와 7명의 자식을 둔 김영철이 거듭 가족과 이산하고 또 다시 만나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런가 하면 강홍립과 주변 인물들의 대결, 그리고 후금과의 전쟁이라는 대결 상황을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그려놓았다고 평가 받는¹⁸⁾ 「강로전」에서도 강홍립과 가족과의 만남, 후금에서 한족의 소씨녀(蘇氏女)와 결연하는 장면, 그리고 강홍립과 이별한 그녀가 조선까지 찾아와 강홍립에게 편지를 전하는 장면 등

17) 박희병, 「최척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 피어난 애정과 가족 간 이산의 아픔과 그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최척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했다.

18) 소계영, 「필사본 한문소설 <화몽집>에 대하여」, 『동아시아문학 속에서의 한국한문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다양한 인간적 만남과 이산의 의미가 극적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⁹⁾

이렇듯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서사단위로 ‘대립(대결)’과 ‘만남’, 그리고 ‘이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의미로 형상화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들 주요 서사들을 통해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진실’을 살피기 위해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 접근하고자 할 때 어떤 의미론적 방법이 가능할까? 라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상기한 세 가지 서사 축 중에서도 특히나 ‘만남’과 ‘이산’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결’은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표면적으로 전면에 쉽게 드러날 뿐더러, 주체와 타자의 의미구조가 선명하게 제시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그동안 역사소설을 민족(민족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주로 원용하던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 소재 역사소설 속 ‘대결’의 서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문제만 간략히 언급하고, 다음 장에서 ‘만남’과 ‘이산’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대결의 서사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타국(타민족)과의 갈등과 관계 인식이 비교적 잘 포착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 대결구도에서 강자와 약자에 대한 시선의 층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선 중엔 소위 ‘차이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배려’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담론 내지 논리가 포착된다. 김영철²⁰⁾을 보자.

“영철은 본래 조선 사람인데, 8년 동안은 우리 백성이었고, 6년 동안은 등주 백성이었다가 이제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 조선 백성 또한 우리 백성이

19) 예컨대, 박희병이 「강로전」에서 부분적으로 전기소설의 문체와 서사방식이 발견되어 전계소설과의 양식적 혼효를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53~56면.)도, 비록 양식사적 측면에서이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소설 속에 내재된 ‘만남’과 ‘이산’의 면모를 특징적으로 파악한 결과라 할 것이다.

다. 더구나 큰아들이 군중에 있고, 작은아들은 우리 건주에 있으니, 부자가 모두 우리 백성인 셈이다. 저 등주라고 해서 어찌 우리 백성이 될 수 없겠느냐? 내가 천하를 얻음이 이로부터 시작되리니, 이 사람이 온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²⁰⁾

인용문은 청나라 군대가 금주에서 10만의 명나라 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영철이 조선의 통사로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청 태종, 누루하치의 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청나라의 장수 아라나(阿羅那)가 홍타이지에게 영철의 지난 일을 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하자, 홍타이지가 이에 답한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홍타이지는 자신을 주체(중심)로, 조선의 백성을 타자로 놓고 이 타자를 주체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영철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원래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왕의 신하 아닌 이가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²¹⁾라는 왕토사상(王土思想)²²⁾의 논리를 포장한 것이다. 적어도 홍타이지의 발언 속엔 얼핏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타자를 배려하는 듯한 시선이 감지된다.

그러나 이때의 ‘차이의 인정과 타자의 배려’라는 의식이란 실은 강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국가(민족) 간 대결에서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을 나타내고 주체와 타자 간의 길항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이자 강자인 홍타이지 입장에서 ‘그들 밖의 타자’인 영철 또는 조선백성은 더 이상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20) 박희병·정길수 편역, 「김영철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87~88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阿羅那告英哲前事, 請罪之. 虜主即舉手南指曰: ‘英哲本朝鮮人, 八年爲我民, 六年爲登州民, 今還爲朝鮮民, 朝鮮民亦我民也. 況其大男在我軍中, 小子在我建州, 父子皆爲我民, 則彼登州, 獨不爲我民乎? 吾得天下自此始, 此人之來, 豈非天乎?’”

이하 「최척전」·「김영철전」·「강로전」에 대한 원문은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交合句解』(소명출판, 2005.)에서, 번역문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돌베개, 2007)에 의거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서지사항은 생략하고 면수만 나타내기로 한다.

21) 『시경(詩經)』 소아(小雅) 「북산(北山).

22) ‘주(周)나라의 토지는 주왕(周王)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 실질적인 소유는 신하(제후)들에게 있었으므로 관념적인 사상에 불과하다.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할 타자가 아니라 동화되어야 하는 ‘우리 안의 타자’라는 논리의 표출인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강자 안으로 ‘동화되지 않는 타자’는 무화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주의적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럽인=인류’라고 여겼던 서양인들의 근대의식마냥, ‘중국인=중심, 주체’라는 중화사상의 등식과도 상통한다. 배려를 가장한 타자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횡포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역사소설에서 ‘왕토사상’을 대의명분 삼아 표방하는 언사는 중국의 천자나 강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약자 또는 패자의 입에서 표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내지 담론은 국가 간 갈등(대결) 국면이 잘 드러나 있는 최고운전·임경업전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²³⁾ 이는 여타 소설(영웅소설 등)에서 관용어구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와는 서사적 기능과 의미면에서 분명 구별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대결을 다룬 역사소설에서 이런 강자의 논리가 관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대인들이 갖고 있던 의식의 사실적 반영이기도 하려니와, 국가 관계를 주체와 타자라는 측면에서 의식하고 있던 시각을 반영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주체와 타자 관점에서 본 만남과 이산의 역사적 진실

1) 타자에 의한 주체성의 성립

23)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① “帝又問曰：‘語云：<普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 以此言之，汝雖新羅之人，新羅亦我之地也，汝君亦我之臣也。’”(朴熙秉 標點·校釋, 『崔孤雲傳』,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247~248면)

② 경업이 황은을 감축하고 물너와 상수를 보니 상시 서로 떠남을 심히 슬허허거늘, 경업이 안식을 화히하여 왈, “화복이 슈에 잇고 인명이 지천하니 조선과 더국이 다르오나 보천지회 막비왕토오,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하니, 엇지 죽기를 사양허리잇고?” 하고 인하여 하직 하니(『님장군전』, 경관 27장본, 국립도서관 소장본, 구두점 및 띄어쓰기 인용자)

특별히 ②는 임경업이 상사(=이시백)와 작별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임경업이 호국을 침범한 가달국을 치러 명군의 구원병 자격으로 출정하면서 한 것으로, 조선이 가달국에 대해 대국 중국과 대등한 문화국으로서의 우월감과 명분을 나타내기 위한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즉 소중화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가달국에 대해 강자로서의 입장에서 내세운 주체 담론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의중이 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체적 인물들이 결연을 맺는 과정과 이별하는 상황 또는 결과를 ‘만남’과 ‘이산’으로 부른다고 할 때, 이러한 서사구조는 여타 소설보다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분명히, 아니 강조된 채 나타나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 을 보도록 하자. 이생이 최량을 국학(國學)과 집을 오가던 어느 날 담장 너머를 엿보게 되는²⁴⁾ 데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둘의 만남이 영원할 거라 믿고 평생을 함께 하려 한다.²⁵⁾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주체(이생)에게 있어 타자(최량)는 ‘우연적인 필연성’을 의미하는 존재다. 또는 그러한 의식은, 조금 거칠게 말하면, 우연적 만남이 지닌 우연성, 우발성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만남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자기합리화 내지 자기긍정의 심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만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진리를 회피하거나 모면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극적 요소가 비롯된다. 헤어짐의 우연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바람일 뿐, 결국 흥건적이 쳐들어와 둘은 서로 헤어지고, 사별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사별 이후에 재회(또한 번의 만남)함으로써 헤어짐(이산)은 둘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최척전 의 경우 만남과 이산의 국면이 여느 작품보다 문면 너머에 충만히 깔려 있어 훨씬 더 다채롭고 짙진하게 그려지고 있다.²⁷⁾ 최척과 옥영이 서로 만나 혼인하는 것부터 순탄치 않지만, 그럼에도 결국 혼인에 성공함으로써 만남의 완성을 이룬 듯 보인다. 그런데 정유재란이라는 불의의 타자적 힘에 의해 최척은 처자식과 부모와 뿔뿔이 헤어지게 된다.²⁸⁾ 그러다가 시

24) 朴熙秉 標點·校釋, 『李生窺牆傳』, 『韓國漢文小說 交合句解』, 소명출판, 2005, 115면. “一日, 窺牆內”

25) 『이생규장전』, 117면, “女…言曰: ‘本欲與君終奉箕箒, 永結歡娛…’”

26) 『이생규장전』, 127면, “夫婦親戚, 不能相保, 東奔西竄, 各自逃生…生奔走得脫, 女爲賊所虜…賊怒殺而鬪之.”

27) 우연성에 의한 만남과 이산의 서사적 국면이 원문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하 주 28)~주 33)에서 밑줄로 처리해 놓았다.

간이 흘러 베트남에서 최척과 옥영이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된다.²⁹⁾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듯 했으나, 다시 명군의 요동 출병시 최척이 동원됨으로써 둘은 또다시 헤어지게 된다.³⁰⁾ 그러나 전장(戰場)에서 포로가 된 후 최척은 갓난아이 때 헤어진 아들 몽석을 만나게 된다.³¹⁾ 이후로 결국 조선 땅에서 최척과 옥영, 부모자식과 사돈지간과도 모두 실타래 풀린 듯 우연하고도 기이한 기회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³²⁾ 이 때 가족과의 이산과 만남을 유발하는 타자는 최척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매번 우발적인 것이며, 특히 다섯 번씩이나 옥영에게 나타난 만복사 장육불(丈六佛)과 같은 타자는 만남을 이끄는 필연적 우연으로 나타난다.³³⁾

김영철전 에서 타국에서 만난 아내나 그의 자식은 영철로 말미암아 이산의 타자로 그려진다. 영철은 출병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타국에서 만난 여인과 가정을 꾸리지만 타국인 처자식과 두 번씩이나 헤어지고(엄밀히 말해, 그들을 버리고) 고국 조선에 돌아온 후 일가친척을 만나고, 다시 새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³⁴⁾ 이들 작품에 비해 강로전 에서의 부부 및 가족 간의 이산과 만남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만큼 ‘대결’ 국면이

29)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交合句解』, 소명출판, 2005, 430~431면. “至丁酉八月, 賊陷南原, 人皆逃竄, 陟之一家, 亦避于智異山燕谷. …行到求禮, 猝遇賊兵, 潛身於巖藪而避之. …‘郎君! 郎君! 主家皆爲賊兵所掠而去, 吾負阿釋, 不能趨走, 賊引兵斫而去, 吾僵地卽死, 半日而甦, 不知背上之兒生死去留,’ 言訖而氣盡, 不復生矣”

29) 「최척전」, 436면. “及聞此言, 惶忙失措, 顛倒下船. 二人相見, 驚呼抱持, 宛轉沙中, 聲絕氣塞, 口不能言, 淚盡繼血, 目無所視. …人人咋咋, 相顧而言曰: ‘異哉異哉!’”

30) 「최척전」, 438면. “玉英執手涕泣而訣曰: ‘…千幸萬苦, 十生九死, 賴天之靈, 邂逅郎君, …不意垂老之年, 又作參商之別. …去矣郎君! 千萬永訣, 千萬永訣!’”

31) 「최척전」, 439면. “陟實與夢釋同囚於一處, 父子相對, 莫知其爲誰某也. …陟吐實歷陳平生, 夢釋色動心驚, 且信且疑, 卒然問其所亡之兒年歲多少, 身體模樣. …陟始認其爲己子也. 因各問其父母俱存, 相持而哭, 累日不止.”

32) 「최척전」, 440면, 442면. “適患背疽…腫勢轉劇…鍼藥難求, 適有華人逃匿者.”; “陟遽執偉慶之手曰: ‘怪了怪了! 吾在杭州, 與君家作隣而住. …獨紅桃見養於其姨吳鳳林家, 我娶以爲兒子之婦, 不圖今日值君於此也.’” 등.

33) 「최척전」, 443면. “忽於一夕, 夢見丈六佛, 撫頂而言曰: ‘慎無死! 後必有喜.’” 등.

34) 예컨대, 「김영철전」에서 영철은 조부와 한 약속(“必歸也”)을 지키기 위해 결국 후금 땅 건주와 중국의 등주에 있는 처자식을 버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끝내 부모의 나라로 되돌아온 것만큼 부모에 대한 효와 나라에 대한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작품에서 영철은 가히 조선 유교사회에서 진정한 주체로 서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영철이 조선에서 주체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의 두 처자식은 작품 속에서 철저히 타자화하고 만다.

작품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하겠다. 적에게 투항한 강홍립이 한족 여성 소씨녀(蘇氏女)와 만나 혼인과 깊은 애정을 나누다가 조선 침략시 서로 이별한 후 소씨녀가 조선까지 찾아와 편지를 주며 강홍립을 만나려 하지만 강홍립이 거부하고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이산)하고 마는 것으로 그려지는 데서 이산과 만남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에서 중심적 서사 또는 사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종합해 보건대, 만남의 우연성은 헤어짐의 우연성을 함축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타자는 현전(現前)에 있어 우연적이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필연적 의미로 다가온다. 이는 결국 작품 속 ‘만남’과 ‘이산’이라는 사건이 주체의 바깥에 타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축하는 서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때 타자를 분출해내는 것은 주체가 결코 아니다. 최척과 옥영의 그들됨, 그리고 그들의 만남과 이산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주체성의 성립에 타자가 외부에서 우연히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 남녀 간 이산과 만남의 우연성의 층만은 타자가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며, 주체와 타자의 거리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김영철전」의 경우, 장가를 3번이나 가 建州(청나라)·登州(명나라)·永柔縣(조선), 이렇게 3개국 3곳에서 3명의 부인과 7명의 아들들을 둔 김영철은 2번씩이나 이국의 처자식을 버렸는가 하면, 훗날 전장(戰場)에서 예전에 자신이 버린 아들들, 예를 들어, 건주에서 버린 아들 득북(得北)과 득건(得建)을 다시 만나는 기막힌 삶을 체험한다. 또한 병사로서의 요동출병, 조청 연합군의 가도·개주·금주 공격시 통사로서의 참전 등 연속적인 전투 참여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했다. 이렇듯 외부적 타자와의 접촉과 영향 하에 김영철의 정체성은 무수한 타자들과의 접촉 가운데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

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 왔으니 또한 한스럽게 여길 게 뭐 있겠나?”³⁵⁾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포기한 타국의 처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영철이 조선인으로서 고국을 택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뒷이야기는 없다. 결국 영철과 가족 간의 이산은 궁극적으로 비조선인 가족을 타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타자화 함으로써 영철이 조선 사회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사장치가 된다. 그러나 김영철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리 간단하지만 않다. 왜냐하면 처자식 대신 고국을 택해 고국으로부터 열렬히 환영이라도 받으며 주체로 살아갈 것 같았던 그의 삶은 오히려 조선에서 낳은 네 아들과 함께 균역을 면제받기 위해 성을 방비하는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에 쪼들린 채 성내에서 20여 년간 지내다가 불쌍하게 죽고 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처자식을 버리고 고국을 택한 것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방법일 것으로 여겼으나, 도리어 국가가 영철을 타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주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작가는 영철이란 평범한 인물을 통해 이념의 주체로서 살기 원하는 인간의 노력보다 그를 타자로 만드는 사회와 제도의 횡포와 폭력성을, 그리고 인생이 이러한 주체되기와 타자되기의 끝없는 갈등의 장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또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볼 때, 한편으로 전란 속의 주인공들 역시 주체가 아닌 타자인 것이다.

강로전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로전 에서 강홍립이라는 소설적 주체는 타자인 애국적 인물들(김응하·김경서 등)이나 송명배호(崇明排胡) 사상

35) 「김영철전」, 90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窮老無聊, 每意不平, 輒登城北望建州, 西望登州, 黯然悽思, 淚下霑襟. 嘗謂人曰: ‘妻子無負於我, 而我實負之, 使兩地妻子沒身悲恨, 今吾之困窮至此, 豈非殃歟? 然身陷異國, 終歸父母之邦, 亦何恨焉?’”

의 자장 안에 있던 조선사회와 갈등을 겪고, 결국 이들을 배신하고 오랑캐 나라 후금과의 공조를 취하게 된다.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 되었을 때 온갖 비난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소씨녀와의 이별도 감내하는 등 여러 차례 작품 속 주된 타자와의 갈등 속에서 강홍립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작품 속 주체로서의 주체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즉, 타자에 의해 흔들리게 된 주체의 정체성이야말로 작가나 독자의 분열된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란의 희생자라는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은 타자이지만,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어 간 김응하, 김경서 등이 주체가 되고, 왕의 밀지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강홍립이나 간신배 한윤 등은 타자가 되어 마땅하다. 후금에 투항하고, 후금의 선봉대가 되어 조선인을 살육한 배신자를 독자들은 선뜻 끌어안을 수 없다. 당대인의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반발하며 침을 뱉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평가나 시대 의식과는 달리, 제목에 딱 들어맞는 강홍립 오랑캐를 주체로서 시치미 뚝 떼고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 때 강홍립을 주체로 붙잡고 있는 시선이란 다름 아닌 무수한 타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 시선에는 이념이나 가치판단에 앞서 최소한 인간적 면모에 대한 동정 내지 철저한 고발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최척전』에서의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과 우연한 만남, 즉 불가항력적 타자의 엄청난 힘에 휩쓸려 온갖 간난과 기구한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척과 옥영이 자신들의 근본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소위 변모하는 주체로서의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재회로 귀결되는 이들 주체의 삶의 궁극적 행로는 타자의 무수한 간섭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특성을 일관되게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들 작품 속에는 전쟁·죽음·운명적인 이별·타국[異邦]과 타국인[異邦人]이라는 이질적 요소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와 힘의 속성을 갖고 주인공의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로 말미암아 주체로서 주인공은 홀로 힘들게 종종 작

품 전체를 헤집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작품 속에서 주체 혼자서 결말까지 책임져야 하는 독점적 상황은 없어진 셈이다. 수많은 타자와의 길항 속에서만 주체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타자들이 한 시대의 이념적 주체의 현현(顯現) 과정에 한낱 보조적 수단 역할로만 기여하던 존재들이었던 데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를 당당한 주체적 상황과 현상의 지위로 상승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역사소설에서의 주체란 드넓은(말이 드넓다는 것이지 무수하고 다면적인) 타자의 공간 속을 떠돌면서(이때 이산과 만남을 경험한다) 직면하게 된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인물이 작품 속의 주체로서 위치하는 모습이란 바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적 주체와 상통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근대로 갈수록 그만큼 작품 속 타자들, 즉 전쟁이나 운명적 상황, 권력 등이 주체 형성 과정에 더 본질적으로 개입하고, 오히려 타자가 익숙한 객체로서 주체 형성에 더 자주 출입하는 사태로 바뀌게 되었음을 목도하게 된다. 17세기 이후의 역사소설에서 이처럼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타자성(힘)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급성장한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최척전 보다는 김영철전과 강로전에서 이런 속성이 더 잘 드러나 있으며, 이들 작품이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시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세 작품 공히 말미에 작가(서술자)가 들려주는 의론(議論)이 있는데, 이는 만남과 이산의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주체가 결국 소설적 주체로 서게 된 과정과 그 평가를 집약해 놓은 것의 다름 아니다.

(가) 아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시아버지와 장모, 형과 아우가 네 나라에 떨어져 ㉡서글피 30년을 그리워하다니! ㉢적지에서 생을 도모하고 사지(死地)를 넘나들다 마침내는 ㉣단란하게 모여 뜻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니, ㉤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필시 하늘과 땅이 그들의 지극 정성에 감동하여 이처럼 ㉥기이한 일을 이루어 준 것이리라. 하늘도 한 여인의 정성을 거스르지 못하니, 정성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도다!³⁶⁾

(나) 의사씨는 말한다. “영철은 ㉠오랑캐를 정벌하러 갔다가 오랑캐 땅에 억류되었고, 달이나 중국에 가서 살았다. ㉡두 곳에서 모두 처자식을 두고 살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 의지가 어찌 그리 매서운지! ㉢그가 겪은 일 또한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가도(假島)를 공격하던 때에는 사지(死地)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그 공적을 기억할 만 하거늘, ㉤순토만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 (중략) 그리하여 ㉥늘어서도 성 지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 가난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죽고 말았으니 이 어찌 천하의 충성스런 선비를 격려하는 방법이란 말인가?³⁷⁾”

(다) 나는 일찍이 ㉧강홍립이 선왕의 구신(舊臣)이면서도 그 은의를 돌아보지 않은 점을 애통히 여겼다. ㉨전군을 이끌고 오랑캐에게 투항한 것이 그의 첫째 잘못이요, ㉩백성을 도살한 것이 둘째 잘못이요,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바랐던 것이 셋째 잘못이었다. (중략) 아이! 승리의 무리도 자신의 주인을 저버리지 않거늘, ㉫명문가에서 강홍립 같은 역적이 나온 것은 어째서일까? 온 하늘을 뒤덮을만한 죄를 지은 자요 천고에 없는 흉악한 자이므로, 말할 게 많아 글이 길어졌다.³⁸⁾”

액자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세 편 모두 서술자의 의론이 간명한 이야기 요약과 더불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은 주체와 타자간의 이산과 만남을, ㉡은 주체성 형성에 개입한 무수한 타자(성)를, ㉢은 주체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줄 만한 지표, 또는 서술자가 주체가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인물임을 직접 평한 부분에 해당한다. 주체의 일생이나 행적이 ‘기이하다’거나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가?’ 라는 식의 평가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주체의 정체성이 낮설다는 서술자(혹은 독자와의

36) 「최척전, 65~66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噫! 夫子, 夫妻, 舅姑, 兄弟, 分離四國, 悵望三紀, 經營賊所, 出入死地, 畢竟團圓, 無不如意, 此豈人力之所致哉? 皇天后土, 必感於至誠, 而能致此奇異之事也. 匹婦有誠, 天且不違, 誠之不可掩如是夫!”

37) 「김영철전, 91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外史氏曰: ‘英哲從征陷虜, 逃入中國, 有妻子, 皆棄去不顧, 卒能返故國, 何其志之烈也! 其事亦可謂奇矣. 及假島之役, 出入死地, 勤勞至甚, 其功可紀, 曾無尺寸之賞, …使之老爲守戍卒, 困窮抑鬱而死, 此何以勸天下忠志之士也?’”

38) 「강로전, 154~155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余嘗痛姜弘立以先朝舊臣, 不顧恩義, 一則全師降虜, 二則屠殺生民, 三則畜無將之心, 希非分之事. …噫! 緇流向不負其主, 吠堯之賊, 反出於衣冠世族, 何哉? 通天之罪, 曠古之兇, 所可道也, 言之長也.”

관계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작가)의 의식과 함께 만남과 이산의 우연성이 개입된 타자의 영향력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그만큼 주체의 정체성이 낮설게 느껴지도록 만든 요체는 바로 주체를 둘러싼 타자들이었음을 의론자(議論者)도 공히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가)와 (나)에 비해 「강로전 (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산과 만남에 의한 타자의 개입의 사태보다 타자의 무수한 영향 하에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주체 자체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17~18세기의 전쟁 소재 역사소설들이 다면적 타자의 모습을 포착해내거나 반영해 내는 데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며, 이렇듯 타자들이 만들어낸 주체성과 주체상을 하나의 역사적 진실로 인식하려는 근대적 의식의 일단이 이들 작품 속에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할 것이다.

2) 만남과 이산의 역사적 진실

그렇다면 이제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전쟁 소재 역사소설이 담보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에 관해 좀 더 천착해 보기로 하자.

의심할 여지없이 최척전 에서의 주체는 주인공 최척이다(물론 옥영을 주체로 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척은 처음부터 최척이 아니었다. 유학자 또는 조선의 선비 하면 떠오르는, 관념화된 그러한 인물이 아니다. 최척은 옥영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 통해 혼사장애를 겪는 마음 졸임을 통해, 이산의 슬픔과 여러 나라를 떠도는 고생을 통해, 그리고 다시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 조선의 선비요 유학자다. 다시 말해 무수한 타자들과의 접촉과 영향 하에 형성된 주체인 셈이다. 이렇듯 외부적 영향을 체험한 주체였기에 조위한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후세에 자기 이야기를 남기고자 한 최척이 된 것이다. 최척이 작품 속 주체로서 최척

39) 「최척전 의 고려대본 표지에는 ‘奇遇錄’이라고 적혀 있다. ‘奇遇’ 즉 ‘기이한 만남’을 주체로 삼았다는 것으로, ‘기이함’과 ‘만남’ 둘 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타자나 사건과 접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척전」이 우연성의 의미가 개입된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임을 시사한다.

답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에 붙어 닳친 전란의 한복판에서 무수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보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최척이 가족과 헤어지고 만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그 타자적 상황을 망각해서는 현재의 최척의 본성 내지 존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최척이 타국에서 보낸 20년 넘는 기간은 인간이 타자와 조우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최척 이야기는 결국 최척을 비롯한 우리가 ‘매번’ 예기치 못한 타자성과 우연히 조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척전』은 최척이 경험한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극한적 상황을 감수성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매번’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타자와의 만남과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야말로 그것이 그 자체로 인생이요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후 주체 변모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척의 기본적 성격, 세계관, 또는 사상 등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존에 속했던 사회와 그 사회 내 질서와 제도, 사상,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타자에 의해 변화된 주체는 여전히 더 거대한 타자의 힘(제도, 사상) 앞에서 소극적 주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다만 부연컨대, 『강로전』에서 주체로서의 강홍립은 최척이나 김영철에 비해 상당한 주체변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이렇듯 작품에서 주체가 설령 소극적 주체 변모를 이루었다고 해서, 주체로서의 진정성마저 소극적이거나 미약하다고 말할 순 없다. 오히려 이들 세 편의 역사소설에서는 진정한 주체성의 가능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타자를 받아들이거나 타자를 대신하려는 주체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주체적 삶을 영위해 나갈 권리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타자와의 차이를

40) 예컨대, 『강로전』에서 “홍립은 가슴속에서 문득 한 가닥 양심이 꿈틀거렸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부끄러움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148면)라든가, “그 그림(=『충렬록』, 인용자 주)을 본 홍립은 안색이 흠뻑으로 변하며 몹시 마음 아파했다.”(149면)라고 서술해 놓은 대목 등에서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껴안고, 타자(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책임을 저야하는 주체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타자화한 주체다. 결국, 이들 작품에서 만남과 이산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은 주체와 타자의 상호관계와 작용이 얼마나 포용적인가? 라는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吳總兵)의 천총(千總)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 만한 하도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⁴¹⁾

명색이 명나라 장군이지만, 그의 출신과 집안이 대단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려 함을 보여준다. 적어도 인간 대 인간의 자격으로 만났을 때 서로가 주체로서(타자가 아닌) 존재할 근거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했으며 왜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중략) “내 비록 어리석다 하나 목적은 아니니,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돈주머니에서 은 10냥을 꺼내 옥영에게 주며 말했다. ⁴²⁾

최척전 에서 여주인공 옥영이 전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신자 일본인 병사 덕분이라고 했다. 동아시아의 보편 종교인 불교와 그 교리를 내세워 동아시아인의 평화와 구원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신념을 작품 내면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사르트르가 말한 바, 종교 또는 신적 존재는 ‘극한까지 밀어 붙여진 타자’라는 개념처럼 ⁴³⁾ 종교심은 마지막까지 인간이 포용성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는 보루라 할 것이다. 그런

41) 「최척전」, 35면.

42) 「최척전」, 36면.

43)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199면.

가 하면 최척과 기적적으로 만난 옥영을 일본인 돈우는 몸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부의 만남을 축복하며 돈을 건네주는 미덕까지 보여준다. 이 순간만큼은 이들 사이에 주체와 타자가 따로 없고, 모두 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아니면 적어도 주체에 가까운 타자라 할 것이다) 타국인을 적, 타자로 보지 않고, 동질적 인간으로 보려는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주체성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비단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인간적이다.

(라) 오랑캐 노인 한 사람이 수시로 와서 감시했는데, 최척 부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불쌍히 여기는 빛이 있었다.(중략) 노인이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도 본래는 삭주에서 병사로 있었다. (중략) 내 비록 누르하치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어찌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⁴⁴⁾

(마) 최척이 위독한 상태로 여관에 드니 호흡이 가빠지며 곧 목숨이 끊어질 듯했다. 몽석이 마음을 졸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나 침이나 약을 구할 길이 없었다. 마침 도피 생활 중이던 중국인 하나가 호남에서 영남으로 가다가 최척을 보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일 오늘을 넘겼다면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인이 자루에서 침을 꺼내 최척의 등에 난 종기를 터뜨리자 최척의 병이 그날로 나았다. (중략) 몽석은 아버지를 살려준 중국인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크게 보답하고자 집으로 함께 데리고 왔다.⁴⁵⁾

최척 부자가 탈출을 하고(1), 또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2)은 타자인 오랑캐 노인과 중국인(진위경, 최척의 아들 몽선의 장인)에 의해서였다. 또한 타자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최척 부자는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자며 공존을 제안한다. 적어도 행간 사이에서 중국인을 타자로 경계하거나 이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국적에 앞서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을

44) 「최척전」, 50~51면.

45) 「최척전」, 51~52면.

뿐이다.⁴⁶⁾ 이러한 인간관계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최척전, 전체에 걸쳐 흡인력 있는 서사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작품 속 타국인(타자)은 극복해서도 안 되고, 극복할 수도 없는 타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타자에 대한 시선, 곧 외국인을 타자로 경계하거나 대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김영철전⁴⁷⁾과 강로전⁴⁸⁾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김영철전 보다 강로전 에서 더욱 그러하다.⁴⁷⁾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의미구조는 이생규장전⁴⁹⁾에서도 그 일말이 보인다. 이생(주체)이 전란을 당해 이산한 후 다시 만나게 된 죽은 최랑(타자)을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미혹됨 없이 재회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비록 전쟁 소재 역사소설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살아 있는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기소설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서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점이 다르다. 전기소설의 환생담이나 결연담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지위나 역할이 허물어지는 지점을 종종 감지할 수 있다.⁴⁸⁾ 이때의 타자는 나와 너의 조화 속에서

46) 이 때 주체의 모습은 마치 신약성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

47) 누루하치 군대에 붙잡힌 김영철이 참수당할 상황에서 누루하치의 부하장수 아라나(阿羅那)가 자신의 아우와 김영철이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종으로 삼는 장면이나, 김영철이 명나라 등주(登州) 출신의 중국인 투항자 전유년(田有年)과 함께 생사를 같이하며 도망을 치고 동고동락의 눈물을 흘리던 일, 또한 영철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전유년의 누이와 혼인을 하고 혼인식에서 다 같이 조선의 노래와 춤을 추며 흥겨워하던 일, 훗날 김영철이 전유년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중국에 남겨놓고 온 자신의 아내와 자식에게 배 20필을 전달해주기를 부탁하는 장면 등에서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약화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명나라인과 조선인이 공히 만주인과 적대적 상황에 있는 데서 기인한 동질적 시선이며, 만주인에 대해서는 타자적 거리를 엄연히 두고 있다. 「강로전」에서는 부정적 주인공인 강홍립을 내세워 숭명배청(崇明排淸) 사상을 구현해 놓고 있는 바, 주체인 강홍립과 타자로서의 만주족, 그리고 주체 이외의 조선인 사이에서 갈등과 비판적 시선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작품 전체를 관류하고 있다.

48) 전기소설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력자나 초월적 존재는 서사전개 과정에서 타자로서 적극성을 띤다. 우리의 인식세계에서 현실과 환상이란 일차적으로 인식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이지 의미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아니다. 예컨대, 「최척전」에서 등장하는 장육불(타자)은 주체(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이산을 유도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꿈속에 갑자기 장육불이 나타나 주인공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만한 계시를 여러 차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하고도 비현실적인 타자로서의 장육불은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타자 중 하나일 뿐, 서사전개 또는 주체구현에 있어 장애 또는 결함이 되지 않는다. 주체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불가항력적인 힘이자 우연히 맞닥뜨리는 타자라고 할 수 있듯이, 장육불의 현현 역시 우연히 나타나는 타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용해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제, 논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작가와 독자의 입장에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진실’을 조작하는 주체와 타자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바) 내가 남원 주포(周浦)에 우거하고 있을 때, 최척이 나를 찾아와 위와 같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 주고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최척의 요청을 사양하지 못하여 대략 그 줄거리만을 들어 기록했다.⁴⁹⁾

(사) 외사씨는 말한다. “(중략) 나는 영철의 일이 잊혀져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을 슬퍼하여 이 전을 지어 후인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김영철이란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⁵⁰⁾

(아) 이육고(노승이) 무오년(1618)부터 정묘년(1627)까지 일어났던 일의 전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강홍립에 관해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온 하늘을 뒤덮을 만한 죄를 지은 자요 천고에 없는 흉악한 자이므로, 말할 게 많아 글이 길어졌다.⁵¹⁾

위 인용문은 작가가 이야기를 창작 또는 기록함에 있어 주체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각각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바)와 (아)는 각각 주인공 최척과 강홍립의 서기(書記) 노릇을 한 노승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를 기록, 전달한 것이며, (사)는 외사씨(外史氏, 작가 홍세태)가 영철의

다. 따라서 고전소설에서 번번이 등장하는 우연적 사건이나 환상적 요소 역시 주체를 주체답게 만드는 수많은 타자 중 하나로 기능하며 진정한 주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채평가될 필요가 있다. 리얼리티의 부재 내지 리얼리티 실현의 불철저함이란 이유로 환상적 요소가 작품의 수준과 질을 평가할 때 시대적 또는 작가의 한계로 지적될 것이 아니라, 주제 실현에 있어 타자로서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의미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화란 타자로 인한 주체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체화는 자기합리화 내지 자기내면화, 자기공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타자로서의 환상적 요소(환상성)은 타자로서의 사실적 요소(사실성)와 대등하게 의미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49) 「최척전」, 66면.

50) 「김영철전」, 91면.

51) 「강로전」, 155면.

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지은 것이라고 했다. 이 때 (바)는 끝내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결말을 이룬 최척의 경험담에 기초한 것에 비해, (아)는 강홍립 곁에 있으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해를 입었다는 노승의 증언에 기반을 둔 것이며, (사)는 충성스런 선비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외사씨의 시각에 근거를 두고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누구의 입을 빌어 서술한 것 자체를 허구적 서사장치로 보아 그 문학적 의미를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작품 속 주인공을 주체로, 주변 인물과 세계, 또는 힘을 타자로 선택, 배열해 놓는 기본관점이란 작가(서술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최척, 김응원⁵², 노승)의 관점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작품의 ‘역사적 진실’을 조작하는 주체인 셈이다. 그러나 독자라는 타자와 상대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작가다. 작가는 작품 속 화자들이 조작해 놓은 ‘역사적 진실’에다 무수한 타자인 독자의 개입과 영향을 자체로 걸러 다시금 자신의 주체적 진정성을 ‘역사적 진실’에 덧입혀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독자는 타자로 자리매김하지만, 일단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난 순간, 그 위치란 역전되고 만다.

결국 역사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 진실’이란 궁극적으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주체와 객체로서 서로의 생각이 만나는 만남의 장이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 만남이 충돌일 수도, 화합일 수도 있다. 다만 작가는 분명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독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그 만남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그 작품은 가치 있는 작품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렇듯 작가와 독자를 주체와 타자의 문제로 환치시킬 때 역사적 진실을 보여주는 서사구조는 열린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집단적 표상이나 공동의 이상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집단성으로, 진리를 향하면서 타자를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

52) 최근에 권혁래는 원 「김영철전」의 작가를 김응원(金應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김응원은 자모산성에서 말년에 성지기로 살고 있는 김영철을 만나 그의 인생사를 듣고 감명을 받아 「김영철전」의 원작이라 할 텍스트를 저술했다고 한다.(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93~128면.)

과 나란히 있는 자로서 인식하는 집단성이다. 이것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와 타자 또는 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체와 타자 인식에 있어 시대적,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한 집단성으로, 우리는 김영철의 삶을 보면서 재능과 공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시민의 삶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을 수 있다는 동질의식을 갖게 된다. 매개자가 없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한 관계로서의 집단성이 바로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고전문학(인문학) 연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4.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전쟁 소재 역사소설이야말로 주체가 외래적인 타자(전쟁)에 크게 좌우되어 나타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장르로 보았다. 특히나, 주체와 타자의 거리가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타자의 적극적 개입이 가장 두드러진 장르 중 하나로 보았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산’과 ‘만남’의 의미를 주체와 타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고전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우연과 필연(환상성과 사실성)의 논리가, 주체와 타자 관점에서 볼 때, 우열의 문제가 아닌, 등장인물과 세계가 만들어내는 관계성, 즉, 타자를 끌어와 주체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체의 자기합리화 내지 자기궁정을 이루기 위한 서사장치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한 가지, 비록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전쟁 소재 역사소설이 아닌 군담 소설 또는 영웅소설에서도 전쟁(전란)으로 인한 이산과 만남, 그리고 대결의 화소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볼 때, 역사소설과 영웅소설에서의 만남과 이산의 의미는 어떤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 이에 관한 상론(詳論)을 펼 순 없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영웅소설에서의 전쟁(대결), 그리고 만남

과 이산은 모두 주체인 영웅의 주체성을 세상에 과시하고 자기실현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 내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웅소설은 주체 중심으로 주체를 향해 타자들이 존재하거나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룬 역사소설 작품들에서는 주체가 서사진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들의 지대한 영향 하에서 주체가 비로소 주체로서 존재 가능하게 되는 의미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세 편의 작품은 주체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인류애(연대감)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체의식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한 민족(국가)이 아닌 인간(개인)을 주체로 놓고, 주체가 타자에 의해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리얼하고 밀도 있게 포착해냄으로써 만만치 않은 서사표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소설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그 중에도 「최척전 보다는 「김영철전 과 「강로전 이 그러한 특성이 더 선명히 드러나 있다. 타자에 의한 주체의 정체성 혼란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주체와 타자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망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 사유 체계에 더 근접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앞으로 계속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이론적 무장이 좀 더 치밀하고, 용례 또한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7세기 이전에 『금오신화』로 대표되는 이전 소설작품들과 17세기에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기 세 작품과의 상이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일이나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소설사를 꿰뚫는 사(史)적 특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 공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여러 소설 작품들(전기소설·전계소설·실기소설·영웅소설·기타 역사소설 등)과의 대비 고찰 역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은 물론 전쟁에 휩쓸린 사회 역시 커다란 영향 하에 변화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기에 소위 타자성에 의한 문화 만들기의 동력이 사회적으로 대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들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기약해 본다.

참고문헌

-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출판부, 2003.
- 강신주, 『莊子 :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 권혁래, 「전란 중 민생의 포착 : <최척적> 유형」,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 _____, 「나손본 <김철전>의 史實性和 여성적 시각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 김대현,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김장동, 『조선조 역사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6.
- 「남장군전」, 경판 27장본, 국립도서관 소장본.
-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 박희병, 「최척전」, 김진세 편, 『한국 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 _____, 「1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민중의 삶-<김영철전>의 분석」,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 _____,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 _____, 「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姜虜傳>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 _____,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交合句解』, 소명출판, 2005.
- 박희병·정길수 편역, 「최척전」·「김영철전」·「강로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 소재영, 「필사본 한문소설 <花夢集>에 대하여」, 『동아시아문학 속에서의 한국 한문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 송하준,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방식과 그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제138집, 국어국문학회, 2004.
- 윤채근, 『차이와 세계 : 서정과 서사의 존재론』, 월인, 2000.
- 정출현, 「초기 한문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와 그 전망: 15세기 『금오신화』에서

- 18세기초 <김영철전>까지』,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 정환국, 「16~1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 _____, 「17세기 실기류와 소설의 거리」, 『한문학보』 제7집, 우리한문학회, 200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4판), 지식산업사, 2004.
- 현진건, 「역사소설 문제」, 『문장』, 1939년 12월.

The Subject and Others of Dispersion and Meeting Again in a War
Historical Novel

- Focused on

ChoiCheok-Jeon(崔陟傳)·*KimYoungCheol-Jeon*(金英哲傳)·*GangRo-Jeon*(姜虜傳) -

Lee, Min-Heui

This study aims at defining peculiarity of a war historical-classic novel eg. *ChoiCheok-Jeon*(崔陟傳)·*KimYoungCheol-Jeon*(金英哲傳)·*GangRo-Jeon*(姜虜傳). Most of all, war historical novel is one of genres not only to show clearly the matter that the subject(主體) is influenced by others(他者) like a war(e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or an irresistible force, but also to clear most definitely a distance between the subject and others. It is notable that others take an active hand to form the subject in these works. Here the subject means heroes or writer or contemporary ideal, a sense of values of those days etc. The other side, others means other things surrounding the subject.

Hero and his family in above three war historical works experience to get scattered each other by war, and manage to meet again contingently. In this case, their dispersion and meeting again happen accidently on account of influence of numerous others(irresistable force, fortune, god's helping etc.) From the point of Choseon, it is easy for Japan or even China(which built by barbarian nation) to be recognized by others. But, above three works tell us that true identity means 'attitude or thinking which is able to accept the difference of others'. Therefore, basic perspective for dispersion and meeting again of hero as the subject in war historical novels is about how broad-minded mutual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others works. That is, one of topic of three war historical novels is related to love for humanity of a East Asian countrie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nation.

Three war historical novels are worthy of setting high value from a point of view that not nation but an ordinary person is created as the subject, and writer actually catches the process(=reality) of getting personal identity by others. Historical truth from a war historical novel is ultimately connected that becoming the subject due to others and self-rationality are able to describ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ersion and meeting again with open narrative structure.

Key Words : the subject and others, meeting, dispersion, a war historical novel, contingency, true identity, East Asian countries love for humanity, *ChoiCheok-Jeon*(崔陟傳), *KimYoungCheol-Jeon*(金英哲傳), *GangRo-Jeon*(姜虜傳)

접수일자 : 2008. 4. 10 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 게재결정 : 2008. 5. 20
--